

하루를 시작하며



권희진
디어마이블루 서점 대표

팔리기 전의 모든 책은 서점 주인장의 자산

동네 서점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
이라면, 사람들이 서점에서 책을 볼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본 적
이 있을 것이다. 페이지를 구기거나 침
을 발라가며 본다가거나 책 위에 아무렇
지 않게 음료를 올려두어 표지를 오염시
킨다거나 부주의하게 책을 다루다 떨
어뜨려 책을 망가뜨린다가나 등등.

나 도매상에 미리 책값을 다 지불하고
가져와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판다.
바꿔 말하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로
진열된 책들은 서점 주인 개인의 소중
한 자산이나 마찬가지란 뜻이다. 그런
데 그렇게 망가뜨린 책을 본인이 구입
하기까지 미안해하기만 하고 그대로 간
다거나 사과도 없이 슬쩍 나가버리면
그 우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들은 모두 반쯤 대상이다. 그 손해는
출판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출
판사의 손해도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
이 서점의 책들을 함부로 보는 경향은
반쯤에 대해 큰 부담이 없는 대형 서점
이 도서관처럼 '읽는 기능'을 강조하
면서 생긴 부작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수익 구조가 한정적
인 작은 동네 서점이 이런 독자들의 니
즈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편하게 보시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고
의가 아닌 이상 책이 좀 망가졌다고 해
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손님들이 필요
이상으로 미안해하는 걸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기도 하다.

사설

초라한 투자유치 실적, 내놓기 민망하다

제주도의 투자유치 실적이 좀처
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실적
이 조금이나마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실망스
럽다. 실제로 행정에서 투자유치
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의 투자
유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
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2019년 4억1700만달러로 50% 늘
었으나 지난해엔 3억6300만달러
로 줄어들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를 국적별로 보면 홍콩이 60.0%
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음 버
뮤다 36.79%, 중국 1.8%로 나타
났다. 홍콩과 버뮤다 등 특정국가
에 지나칠 정도로 쏠려 문제로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마당

생명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



성규현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찬바람이 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
어오는 계절이 찾아왔다.
따스한 봄철은 소방관들에게는 출
동이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기
에 항상 준비를 갖추고 출동 준비에
입해야 한다. 현장 대처능력도 중요
하지만 신속한 현장도착 또한 매우
중요하다. 바로 '골드타임'을 잡기
위한 것이다.

가장자리로 이동해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고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필요
에 따라서는 일시 정지한다.
둘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
차량이 1차로로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한다.
셋째,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소방
차량이 2차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좌측, 우측으로 이동한다.

뉴스-in

국가경찰-자치경찰 격한 논쟁

조례안 수정여부 두고 대립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운영·구성
조례안을 놓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의회에서 한발짝도 물러서
지 않는 격한 논쟁을 이어가면서
급기야 도의원들이 갈등을 풀라며
서로 약속할 것을 요청.

이날 국고절충 대상은 4개 사업·
총 682억 원 규모로, 사업 추진에 대
한 당위성·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
기침체로 세수 부족 등이 예측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2022년
국비 확보 목표액 6000억원 달성
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

공공갈등 해소 나선 제주시, '성과'로 답해야

제주 지역사회가 각종 개발사업
관련 갈등으로 마을 곳곳마다 '생
태기'를 내고 있다. 마을주민과 사
업자간, 주민과 행정간, 주민간에
발생하는 여러 공공갈등은 제주사
회 미래발전의 큰 장애로 떠오른
지 오래다. 당사자간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으로 해법찾기가 너무
어렵고, 행정도 역할을 못해 사업
은 커녕 '허송세월'만 보내는 사례
들이 많다. 이 상황에 각종 공공갈
등 해결에 나선 제주시의 행보는
시의적절하다.

4월내 대상 사업 가운데 갈등 강
도나 사회적 파장 등이 큰 중점관
리대상 1곳을 선정, 갈등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갈등조정 전문가단
자문·운영으로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해법찾기에 나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故)박철수(前 제주지방병무청·중수
(광덕철강주식회사 이사) 아버지 밀양
박공 병윤(향년 87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23일 07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알려 드립니다
▶일 포: 2021년 3월 24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3월 25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김녕 입산봉공동묘지
배우자 백학순
아들 박철수(故) 며느리 백희순
중수 고인희
남수 김미옥
딸 박경자
장손 박재구 손녀 박재옥
손자 박재용 수빈
재남 해빈
진리
※연락처: 박중수 010-2965-1780
박남수 010-8355-4924
박경자 010-2634-5582
백희순 010-6712-1948
고인희 010-3054-1780
김미옥 010-7924-492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부공 현식(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24일
부인 양인순
아들 부성훈 며느리 김진영
용훈 이동희
우훈 오은경

해산 및 이의신청, 채권제출공고
당 협동조합은 2021년 03월 04일 조합원총
회의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고, 2021년 03월
18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니, 당 협동조
합의 해산에 이의가 있거나 채권이 있으신 분
은 이 공고 게재 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
의 및 채권액을 당 협동조합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0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 22 (이도이동)
정산인 이해연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망 고윤호(1944.5.1.생)
*최후주소: 제주시 남성로9길 33(용담일동)
상기자는 2020년 12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3월 17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정20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
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
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시 신광로6길 13, 4동 605호(연동, 제원아파트)
2021년 3월 24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경학, 고경란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I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대!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100%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